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경엽(손정아), 김경태, 김광호, 김기안(하세련), 김누리힌, 김운주, 김정자, 김진희, 김춘화, 김한나, 김현구(서재희), 김형국(이오순), 류승우(김외자), 박권재(송명숙), 박혜진, 박근영(윤 숙), 석애자, 송형기(김현숙), 신세균(유미란), 오동호(강소영), 윤승한(민옥희), 윤조훈, 이복현, 이상아, 이창규(곽정순), 이향교, 임만순(서영숙), 임영자, 임정빈, 임지빈, 채명엽, 채희춘(황영옥), 최성현(윤정자), 최정희, 허봉선.(총35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봉석, 강준식(김정연B), 김한나, 맹관순, 박부웅, 박영식, 박춘자, 백근영(윤 숙), 성미영, 신세균(유미란), 윤승한(민옥희), 이복현, 이상아, 이희환(오희정), 임영자, 채희춘(황영옥), 최정희, 하세련, 허봉선, 황응광.(총20명)

♣ **감사헌금**
 이필레, 이승이, 강준식(김정연B), 김누리힌, 김병을(이영숙), 김종선(박영숙), 김현구(서재희), 박금엽, 박복례, 박부웅(최귀남), 신정순, 오택현(김운주), 유호근(손명화), 윤승한(민옥희), 이경자, 이상희, 이월숙, 이인숙, 이춘호, 이효숙, 전영선, 정영성,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최성현, 허봉선, 홍순준, 황영옥, 영유아유치부, 무명2.(총31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레, 김민성, 김정훈,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강우, 이경자,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임현희, 정옥순,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김민혁, 신지현, 신현진, 양일석, 이노을, 무명1.(총36명)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5년 제 6주 : 민수기 8 - 30장			
주 일	민수기 8 - 12장		
월요일	민수기 13 - 15장	목요일	민수기 22 - 24장
화요일	민수기 16 - 18장	금요일	민수기 25 - 27장
수요일	민수기 19 - 21장	토요일	민수기 28 - 30장

시 무 장 소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 퇴 장 소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 역 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이승이, 최유경, 문수경	
찬 양 대	지 휘 자	활 렬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애 멘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고광훈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 국: 박동권 김영화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문옥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 력 교 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 력 단 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2. 1 주일 예배 설교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일을 할 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턱대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일이나, 진짜 일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행할 때 쓰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다는 전제하에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음으로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 자신이 어리석다고 하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자신의 어떠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1)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죄인의 사형 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능력이 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믿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2)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바울은 생명을 바치며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를 증거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저나 잘하지”라는 혹평도 구지람도 혹은 비판이나 손가락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의 내 일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3)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는 지혜요, 은혜요, 생명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Paradox 즉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설이 아니라 진실이요, 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왜 바울은 이토록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1)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지혜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이는 그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정말 절대적 이요, 진리요, 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2)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으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 또한 완벽하게 이며 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결국 멸망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는 길이 생명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3) 세상에서 열시 천대와 핍박을 받는 것이 어리석은 일 같으나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3. 우리 또한 어쨌든 세상에는 어리석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 세상의 기준에는 어리석은 자나 분명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지혜와 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지혜와 간교함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는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참 진리요 생령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음절인 18절에서는 “솔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어쨌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며 세월을 아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에 미련할 수 있으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지혜와 은혜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5

No. 41 - 6

2015. 2. 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야가 4:15)

담 임 목 사	이 진 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화: 윤 정 호 장 로
(2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292장 다 같 이
(Praise)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김 성 욱 집 사
(Prayer) (2부) 윤 정 호 장 로

성 경 봉 독 —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신약 P.297) — 염 영 분 권 사
(Scripture)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 200장) 다 같 이
(Anthem) (2부) 은혜 아니면 (조성은)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본 자격 —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1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2부) 십자가/십자가를 질 수 있나 브 라 카
(조은아/H.S. Mason)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434장 다 같 이
(Praise)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부) 찬송가 351장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2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부위원장 김 병 을 장 로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146편 1-2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헌 신 결 의 서기 윤 정 호 장 로
찬 양 — 찬송가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 다 같 이
기 도 — 총무 임 만 순 장 로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28장 1-10절 (신약 P.236) — 부총무 최 성 현 집 사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 재난을 통해 성취된 기적 — 이 진 우 목 사
예 물 봉 헌 — 기도 : 회계 이영숙 권사 다 같 이
특 송 선교위원회 임원
광 고 사 회 자
찬 양 —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다 같 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 주: 이연숙 권사) 최 귀 남 권 사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4장 21-24절 (신약 P.148) — 인 도 자
설 교 — 6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가요? —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30 재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재교육관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9:30 유초등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0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무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렘나무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소 망 부 (경로대학)	토요일 오전 10:30 재교육관
전 도 팀 모임	목요일 오후 2:00 재교육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교회소식

◎ 광고

- [사랑의 주일]
오늘(8일)은 2015년도 “상반기 사랑의 주일”로 지킵니다.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오늘(8일) 찬양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 [임직자 교육]
일시/장소: 2월 1일(주일)~4월 26일(주일) 1시 50분 / 로렘나무
임직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임직을 받을 수 있사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
내일(9일)부터 불성경학교와 새학기를 준비하며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월 9일(월)~28일(토)
- [금요기도회]
이번 주(2/13일) 금요기도회는 “말씀3초원” 주관입니다.
- [초원별찬목회/여전도회 친목회]
오늘(2/8일) 믿음3, 소망1(한우회관), 소망3(제1교육관), 충성2(로렘나무)
초원친목회가 찬양예배 후에, 한나여전도회 친목회가 토요일(14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청년부 일일수련회/불 성경학교]
아래와 같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물질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제	일시
유 치 부	준비됐나요?(살전 4:13)	27일(금)~28일(토)
유 초 등 부	막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요 5:39)	26일(목)~28일(토)
청 년 부	청년부 모여라!(히 10:25)	13일(금)~14일(토)

- [총동원 주일]
5월 31일(주일)에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작정: 2/22일, 3/1일, 본작정: 3/8일)
- [주일예배]
3월 첫 주부터 주일예배를 3부로 합니다.(1부~오전7시/ 2부~오전10시/ 3부~오전11시30분)
- [서울남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서울남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제41회기 정기총회에서 성현교회 10년 근속교사로 최성현 안수집사, 임영득 권사, 김명숙 집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5년 2월 12일(목) 오전 11시 (*교회출발: 오전 9시 50분)
장소: 남서울교회(화중부 목사 시무, 02-2023-5600)
- [여전도회 연합사업]
다음 주일(15일)에 연합여전도회에서 떡국용 떡을 판매합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여전도회 월례회(2부예배 후/분당) *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찬양예배) * 임직자 교육(오후1시50분/로렘나무)	* 남전도회 월례회(2부예배 후/분당) * 장학위원회 임원회(오후1시30분/로렘나무) * 임직자 교육(오후1시50분/로렘나무) * 교육위원회(찬양예배 후/로렘나무)

◎ 담임목사 동정

* 2월 12일(목) 목양선교회 참석(오류동남부교회, 서규장 목사 시무)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박영애 집사	박영숙 집사	사라여전도회	염영분 권사	사랑1 고척1,2	한나여전도회
	* 떡은 윤승한 성도, 민옥희 집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부친 故 윤중현氏 장례).					
다음주	김민수 학생	심하영 청년	윤정호 장로, 유옥자 권사	차육자 권사	사랑2 개봉2,3	드보라여전도회

◎ 교우소식

- * 정경순 집사(사랑1 고척1) 고대구로병원 입원
- * 유시형 청년(믿음2 등촌, 유현호, 이영미 집사 3남) 2/10일(화) 입대

2월	순 서	1 부	2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 회	기 도	기 도
1주(1일)	최성현 집사	윤병호 장로	윤 숙 권사	이일로 장로	홍정훈 집사	배숙자 권사
2주(8일)	김성욱 집사	윤정호 장로	염영분 권사	김병을 장로	임만순 장로	최귀남 권사
3주(15일)	유현호 집사	김병을 장로	차육자 권사	윤병호 장로	최성현 집사	이연숙 권사
4주(22일)	장윤주 집사	최기훈 장로	유미란 권사	강영성 장로	장윤주 집사	서재희 권사
예배안내	이일로 윤병호 강영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